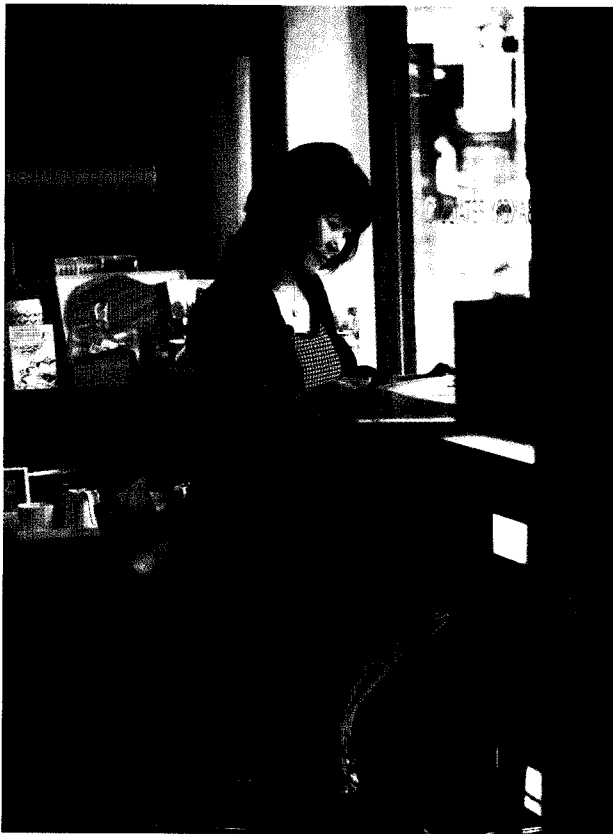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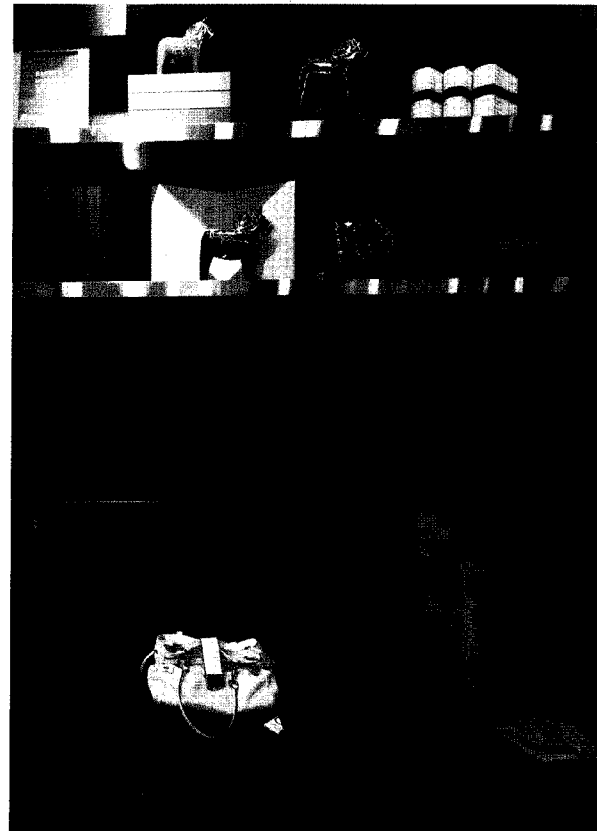


집에 아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봤을 그 목소리. 아이들 사이에서 뽀통령으로 불리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의 목소리 연기자 이선(40세) 씨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정상 성우이다. 성우로 연극배우로 때론 가수로도 활동하는 그녀를 만나 건강한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뽀로로 목소리 주인공
성우 이선

뽀통령 목소리의 비밀



연습벌레 성우, 천의 목소리를 가지기까지

흔히 성우를 가리켜 '천의 목소리를 가진 배우' 라는 말을 많이 쓴다. 천진한 아이의 목소리에서 성숙한 어른의 목소리까지 자유자재로 연기하기 때문에 붙여진 말일 것이다. "배우들은 이미지가 맞지 않으면 연기변신을 하기 힘든 점이 있어요. 반면 우리 성우들은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 목소리를 바꾸고 색다른 연기를 할 기회를 얻게 되죠." 단순히 목소리를 만드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닌 연기자로서 성우를 생각하는 이선 씨가 성우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다. "성우란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던 때에 우연히 성우들이 출연해 시낭송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멋져 보여 그날 바로 성우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성우로 꿈을 정하고 간 대학에서 그녀는 지독한 연습벌레였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가끔 학교를 찾아오는 선배 성우들이 밤새 연습하는 그녀를 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선만큼만 해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런 연습 덕분에 졸업하자마자 성우 공채시험에 한 번에 붙을 수 있었다.

철저한 목 관리 15년을 빠짐없이

"애니메이션이든 외화든 배역에 따라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바꾸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저도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학 재학 시절에도 혹독한 연습으로 피를 몇 번 토한 적이 있던 그녀는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 목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목을 혹사하다 보니 어느 때부터인지 목이 빨리 쉬고 천천히 회복되는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성대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큰 기로에 서게 되었죠. 수술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소리가 변하거나 음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감을 잃으면 이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수술을 포기했죠. 대신 1년 정도 쉬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었어요."

그때부터 해온 그녀의 목 관리는 과로하지 않기, 술·담배 안 하기, 소금 가글 매일 하기, 잠 많이 자기, 탄산·인스턴트·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기, 노래방 가지 않기, 무리했다 싶으면 대화 자제하기 등이다. 언뜻 보기에 평범하다 싶어 더 특별한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것이라면 당시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죠."라 답한다. 하긴 건강을 지키는 것에는 특별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어렵다는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재 어린이들의 뽀통령 '뽀로로' 의 목소리 배우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성우 이선. 그녀는 성우뿐만 아니라 기회만 된다면 다양한 환경에서 연기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 그녀가 평생 해오고 있는 철저한 건강관리와 긍정적인 생각이라면 그 소망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일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와 연기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그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MEDICHECK